

文化財 指定 近代期 韓屋의 展示用途 變更事例 研究

-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Exhibition Reuse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designated as Modern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Rhiwhachang · Choi Sunu House-

김 해 리*

Kim, Hae-Ri

이 민 경**

Lee, Min-Kyoung

김 태 영***

Kim, Tai-Young

Abstract

The registered-properties guideline was adopted to preserve the facade of existing cultural assets with effect and alter the interior space freely. Bu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over all the converted buildings with the passing of the years as a result of unfeasible design guidelines. Accordingly, the thesis is to propose the problem and assignment in a setting for a display through the conversion for exhibi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designated as modern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Rihwachang · Choi Sunu Hou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xhibition circulation is continuously connected with each room, considering the previous life-style. The interior design elements are preserved according to the stand-up and sitting style. It is possible to put on one sided wall display in stand up style(Rhiwhachang), and island showcase display in sitting style(Choi Sunu House). And also these apparatus is suitable for the existing window pattern and frame.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ssignment of design guideline for exhibition reuse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as well as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as modern house.

키워드 : 근대기 한옥, 근대문화유산, 전시용도 변경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House, Modern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Reuse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 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주택은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릇'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삶과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며, 이에 대한 기록을 가장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근대건축문화재로서의 주택은 오늘날의 새로운 주생활방식을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의 기능을 갖는 건축물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하고 구조·기능적인 부분이 다소 한정적이기에 다른 기능으로의 용도변경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의 근대건축문화재 중 주택은 시대의 흐름에 의한 생활방식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택용도로 계속 사용되거나,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지정 근대기 한옥 중 전시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비교적 잘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한옥을 문화재로써 보호·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외관의 원형 보존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기능으로의 재사용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건축문화재가 지닌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주거용도로 구분되어진 근대건축문화재 중에서도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인물유적 중 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한옥인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¹⁾을 대상으로 전시현황,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시계획상의 개선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II. 이화장의 전시특성과 장단점

1. 입식생활의 근대기 한옥

이화장은 1982년 12월 시도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근대건축문화재이다. 1920~30년대에 신축된 이곳은, 1947년부터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거주하던 곳으로, '대한민국건국

1) 현재 근대건축문화재로 지정된 인물유적 중 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이화장·만해한옥은 심우장·제주 이승만 별장·최순우 옛집 총 4건이다. 이 중 제주 이승만 별장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통한옥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만해 한옥은 심우장은 전시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특징이 비교적 뚜렷히 드러나는 이화장이나 최순우 옛집과 달리 비교분석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그림 1. 이화장 전경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1988년 개관하여 역사자료 및 평소에 사용한 기구와 유품 등이 소장·전시되어 있는²⁾ 기념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래한옥이 당시의 시

대상을 수용하며 변모해 가는 양상을 보여 준다.

기념관 개관 이전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이화장의 공간은 대청을 중심으로 크게 공격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입구이자 홀 부분은 본래 대청이었다. 대청 좌측에는 서재(집무 공간)와 응접실(접견 공간)이 있었고, 우측에는 침실과 부엌, 그리고 맨 끝부분에 곳간(창고)이 있었다. 기념관 개관후의 전시실 구성을 보면 기존의 응접실(접견 공간)은 현재는 유족들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전시공간에서 제외되었으며, 개방하지 않는 부분이다. 서재(집무 공간)는 그 자체를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침실과 부엌부분 역시 각 실에서 쓰이던 모습을 재현하거나 관련 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다. 곳간(창고)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프란체스카여사가 노년에 내한하게 되면서 그의 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는 프란체스카여사의 생활당시 모습을 재현하는 실로 사용되고 있다. 기념관으로의 전시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전시공간의 구성에 있어 기존의 주생활 동선과 공간사용을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화장은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관람을 통해 보면 입식생활이 이루어 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850mm 높이를 하고 있는 창대의 위치, 문의 크기나 개폐 방식 등에서 완전한 한옥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고, 각각의 전시실에 소장되어 있는 유품 또한 모두 입식 가구들이며, 라디에이터나 벽난로 등의 난방 설비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화장이 근대기에 지어진 주택이라는 시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외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했던 이승만 박사와 서양인이었던 그의 부인이 생활하기 위한 주거 공간이었음에서 기인한 까닭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에 위치한 개구부를 통해 제1전시실로 진입하게 되고 이로부터 전시 동선이 시작된다.

2. 전시동선상의 특징

이화장은 각기 별개의 실로 구획된 제1~5전시실의 연속순로형식이다. 입구를 들어가 문 옆으로 방명록을 작성하는 공간을 지나면 제1전시실에서 제2전시실로의 순로를 거쳐 다시 홀로 나오게 된다. 여기에는 이승만 박사 기념물들과 유품들이 주로 전시되고 있고 제1전시실에는 이승

2) 1948년에는 이곳 조각정에서 우리나라 건국이후 초대내각이 이루어진 유서 깊은 장소이다. 이 일대는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인 기계 신헌환의 집이 있어 신대라고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승지였으며, 1988년 '대한민국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개관하여 역사자료 및 평소 사용했던 유품 등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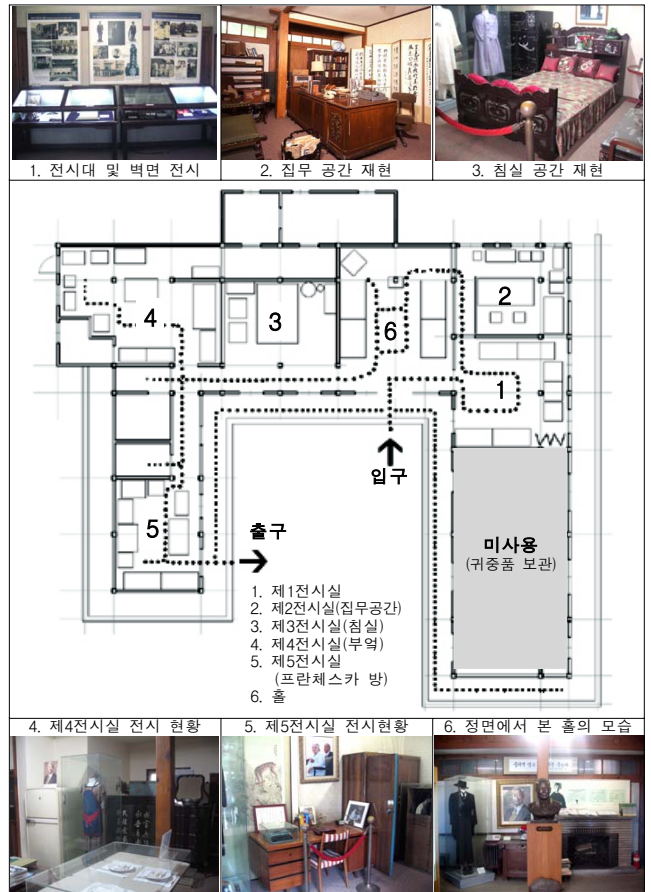


그림 2. 이화장의 전시공간구성 및 동선

만 박사 내외의 연대기를 그린 기념물들이, 제2전시실에는 서재(집무 공간)에서의 생활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전시실을 나와 다시 홀을 거쳐 옛 뒷마루 공간이었던 복도에 진입하면 침실이 재현된 제3전시실인데,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복도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침실 옆은 옛 부엌 공간으로, 부엌에서 사용되던 가구와 집기들을 전시하고 있는 제4전시실이다. 실 내부로 진입하여 관람할 수 있지만 진입부를 제외한 벽면이 전시물들에 둘러싸여 있어 중앙에서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이다. 제4전시실을 나와 화장실과 욕실을 지나면 복도 끝에 제5전시실이 자리한다. 이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방을 재현한 것으로 생존당시 사용했던 문당연필 등 사소한 유품들까지도 보관·전시하고 있다.

관람을 마치면 제5전시실의 개구부를 통해 마당으로 나오게 된다. 이화장 외벽면을 둘러싼 액자 전시는 초입에서부터 중앙홀로 진입할 때 반절을 보게 되고 내부관람을 마치게 되는 제5전시실을 나오면서 반절을 또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구성된 또 하나의 전시공간이나 마찬가지로 내부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관람동선이 가능하다.

3. 전시공간구성

이화장은 이승만 박사의 자손들이 두 내외의 삶을 기리고 간직하려는 의지에서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 문화재 지정 근대기 한옥이다. 생존 당시의 많은 유품들을 고

스란히 소장하고 있으면서 기념 및 홍보의 목적으로 수집·제작된 서적 및 사진들까지도 소장하고 있는 점은, 이화장의 전시공간계획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전시 유형 중 벽면전시가 제1~5전시실까지 모두 일면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관람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으로 기존에 대청이었던 입구부분의 홀에는 양 쪽의 벽에 1,950M 높이의 진열장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는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기념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정면에는 후퇴간의 기둥을 중심으로 목재를 덧대어 이승만 박사의 흉상조각이 전시되고 있으며 실의 구석에 옷가지를 걸어 쇼케이스 전시를 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이승만 박사의 연대기를 그린 기념품들이 진열대 안에 전시되고 있는데, 진열대의 최하 높이는 창대에 맞춘 850mm이지만, 최고 높이가 1,100mm로 창대 높이보다 높아 부자연스럽다. 개구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벽면에 액자와 패널을 통한 전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념관 개관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된 문을 패널전시로 가리기도 하였다. 제2~5전시실은 모두 생활사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2전시실은 서재(옛 집무실)를 재현한 것으로 기존의 유품을 활용한 전시이다. 제1전시실을 통과하면서 접하게 되어 순로에 의해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만 있는 형식으로, 이승만 박사 집무당시 사용되던 집기 등의 유품들이 독립전시 되고 있는 것이 주된 전시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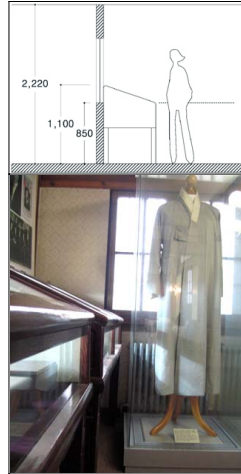


그림 3. 창대높이와 부조화를 이루는 진열대

제2전시실을 나와 다시 홀을 지나서 복도로 가게 된다. 여기부터는 기존의 사적인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던 부분으로, 제3전시실에는 침실공간이 재현되어 있고, 이승만 박사 내외가 이화장에서 생활하며 자주 입던 옷이 쇼케이스 전시되고 있는데, 쇼케이스가 주는 부피감이 좁은 공간을 보다 좁게 느껴지게 한다. 부엌공간을 재현한 제4전시실은 이 공간이 예전에 부엌이었음을 알려주는 설비 등은 남아 있지 않고, 부엌에서 사용했던 집기들을 위주로 전시되고 있다. 부엌기능과 무관한 물품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제1전시실이나 서재인 제2전시실에 전시되는 게 더 어울릴 법한 홍보물 혹은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실 규모에 비해 많은 전시물을 나열하고자 하다 보니 전시실의 주제와 무관한 물품이 이곳에 전시되고 있었다. 쌀 뒤주나 수납장 위에도 쇼케이스를 적립하여 뒷부분의 창호를 가리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복도 끝은 마지막 제5전

시실이다. 복도를 지나다 보면 미사용 중이지만 개방되어 관람 가능한 화장실과 욕실이 차례로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한옥이면서 생활방식 자체는 입식을 취하고 있었던 이화장의 당시 생활상을 잘 볼 수 있다.

제5전시실에는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박사 서거 후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서 노후에 사용 하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과, 별도의 진열대를 통해 전시하는 방식, 쇼케이스 전시가 한 공간 안에서 혼재하고 있다. 벽면에 'ㄱ'자로 세운 진열장에 프란체스카 여사의 속옷부터 일기장 및 사용했던 몽당연필 등 자그마한 유품까지 하나하나 전시하고 있고, 또 한 칸에는 생존 당시의 유품인 책상과 옷장, 의자가 독립전시 되고 있다. 그 옆에는 쇼케이스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즐겨 입던 투피스 등이 전시되고 있다. 7.32×2.43M 규모의 실 안에서 세 가지의 전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할 만한 일이다. 'ㄷ'자 형의 본체 정면부에는 외벽을 둘러싸고 액자를 통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잖이 외관을 가리고 있어 본래 모습과 멋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현된 유품과 생활상이 아닌 당시의 것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화장이 지닌 큰 장점이다. 그러나 다량의 전시물을 협소한 실 안에 채워 넣는 것, 한 공간 안에서 여러 전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시 관람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생활상이 개개의 전시실에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유품들을 전시실별 주제와 중요도에 따라 재차 선별하여 전시할 필요가 있겠다.

III. 최순우 옛집의 전시특성과 장단점

1. 최순우 선생의 미학이 묻어나는 집

최순우 옛집은 (전)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고고미술학자이자 미술평론가였던 혜곡(淸谷) 최순우(1916~1984)가 1976년부터 1984년 사망 전까지 살았던 주택이다. 2006년 9월 19일 등록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전통 한옥으로 전형적인 경기지방 한옥 양식이며, 'ㄱ자형' 본채와 'ㄴ자형' 사랑채, 행랑채가 마주 보고 있는 튼 'ㄷ자형'이다. 사랑방, 안방, 대청, 건넌방의 공간 구성을 지닌 안채는 옛 공간 그대로 두면서 전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동편 행랑채는 사무실, 서편 행랑채는 회의실과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하면서 공간 배치부터 개구부 디자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으로 최순우 선생 손끝을 거쳐 개조가 이루어졌다.



a)창호를 가린 전시(제1) b)전시방식의 혼재(제3) c)외벽을 둘러싼 액자들

그림 4. 전시공간 사용의 문제점

3) 혜곡 최순우는 1916년 개성에서 출생하여 1935년 개성송도고 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개성 부림박물관, 1945년 국립박물관, 1948년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근하여 국립박물관 보급과장, 미술과장, 수석학예연구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쳐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 제4대 관장에 취임하였다. 황수영, 진홍섭 등과 함께 개성 삼길로 불렸으며, 특히 고려청자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표 1.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의 전시실 현황

명칭	실별	전시주제	규모	전시유형					현황 및 장단점		
				벽면 일면 이상	일면	진열장 창 앞	진열장 창 옆	진열대 실 중앙		진열대 독립 전시	
이화장	홀	이승만 기념물	$(2.43 \times 1.5) + (2.43 \times 4.86) \times 2$	●						-이승만 박사 유품전시 -기둥에 목재를 덧대어 이승만 박사의 흉상을 전시 -양쪽 벽에 1,950 mm 높이의 진열장을 세워 개별 조명 -창의 일부를 가려 액자를 전시한 부분이 있음 -집무 당시 생활사를 보여주는 유품이 방을 메우고 있음	
	제1전시실	이승만 연대기	$(3.66 \times 1.5) + (3.66 \times 2.48) + (3.66 \times 2.43) \times 2$	●					●	-개구부를 제외한 벽면에 패널과 액자들이 붙어 있음 -850 mm ~ 1,100 mm의 구배의 진열대를 벽 측에 전시	
	제2전시실	서재	$(3.66 \times 2.43) + (1.2 \times 2.43)$	●		●	●		●	-침구 등 예전에 사용되던 것들의 독립전시를 주로 함 -벽면에 유리박스를 설치해 실내에서 일던 옷을 전시	
	제3전시실	침실	$(2.43 \times 1.5) \times 2 + (2.43 \times 3.66) \times 2$	●					◎	●	-독립 전시 중인 유품 상부에 별도의 유리 진열장을 적립 하고 있어 이것들이 창 모습을 가리고 있고 바닥에 진열장들이 놓여져 있음 -부엌과 무관한 기념물(도서들)이 왼쪽에 전시됨
	제4전시실	부엌 집기, 홍보물	$(2.43 \times 1.5) + (2.13 \times 1.5) + (2.43 \times 3.66) + (2.13 \times 3.66)$	●		●	●			●	-벽면에 제2전시실과 동일한 크기의 진열대 '구'자 전시 -진열대 위쪽으로 창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 액자전시
제5전시실	프란체스카여사 방	$(3.66 \times 2.43) \times 2$	●					◎	●	-문을 피해 전시하고 있음 -벽면에 작은 액자 몇 개만 걸려 있음(내부 의장 보존) -사랑방과 안방 사이 문 부분에 진열장 전시(좌식치수) -창을 피해 전시하고 있음	
최순우 옛집	사랑방	생활사전시(재현)	6.38×2.73	●						●	-한 편에는 유품이 쇼케이스 안에 진열되어 있고, 반대 편에는 생존 당시 촬영된 선생과 최순우 옛집의 사진 앨범이 독립전시(모두 좌식 관람 가능)
	안방	유품 전시	3.2×2.29	◎					●	●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재현물이 아닌 실제 사용하던 의걸이장 보존하고 있음
	대청	유품 및 앨범	4.24×2.73			◎				●	
	건넌방	생활사전시(재현)	3.2×4.55							●	

●: 전시방법상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 ◎: 전시방법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 5. 최순우 옛집 안채 전경

좌식생활을 유지하던 최순우 선생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이 주택은 모든 전시물의 시선이 앉아서 보기에 문제가 없는 치수와 구도로 처리되고 있다. 건넌방의 의걸이장을 제외한 가구들은 최순우 선생 사후에 이 집을

을 재현복원하면서 기증받거나 제작한 것들이지만, 하나 같이 생존 당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간직해 나가려고 노력한 산물들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바닥의 방석 위치 하나까지도 내셔널트러스트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옛 공간을 가장 흡사하게 묘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한 인물의 생활습속이 반영된 기존의 주거공간 안에서의 동선과 공간구성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별도 전시를 가미하고 있는 최순우 옛집은, 주택 자체를 전시화 하여 보존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현재 전시기능으로의 사용뿐 아니라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연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주거건축물 중에서도 '인물유적'으로 분류된 문화재 지정 주택의 보존 및 재사용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 전시동선상의 특징

마당에서 가옥 내부로의 동선이 시작되는 안방은 사랑방, 대청에서 건넌방에 이르기까지 동선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안방으로 진입하면 정면에 사랑방이, 후면에 간이 부엌과 화장실이, 안방의 길이방향에 수직으로 대청과 건넌방이 있다. 현재는 사랑방을 바라다 볼 수만 있고, 관람자들이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있다. 안방에서 잠시 멈추어 소량의 전시물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면 대청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대청을 통과하면서 곧바로 건넌방에 이른다.

사랑방, 안방, 대청, 건넌방에 이르기까지 선적인 동선 체계를 지니고 있는 최순우 옛집은 동선이 계절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라는 게 특징이다. 앞서 말한 안방으로부터의 동선전개가 기본적으로, 봄·여름·가을에는 모든 개구부가 개방되기 때문에 마당에서 대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조사당시는 동절기여서 동과 방지를 위해 안방으로의 개구부만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당-안방의 주동선구조가 더욱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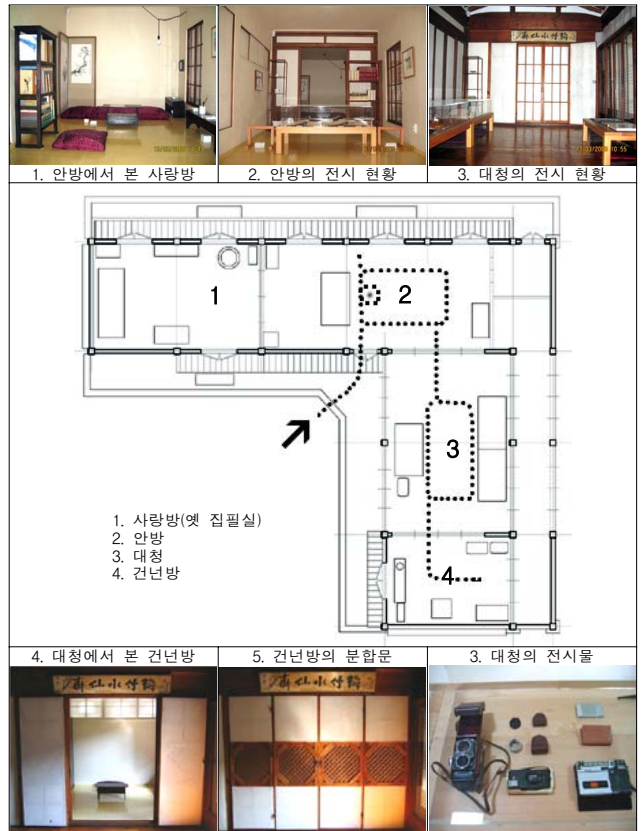


그림 6. 최순우 옛집의 전시공간구성 및 동선

3. 전시공간구성

최순우 옛집의 전시공간구성은 예전의 생활상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의 재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시계획 위한 계획이라기보다, 한 인물의 삶을 담아 그 모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시용도로의 재사용이 모색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간 자체가 관람자를 유도하는 주된 주제이며, 별도의 전시물은 공간의 분위기를 압도하지 않는 단출한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다.

안방에 설치된 길이1,300mm×폭700mm×높이600mm의 쇼케이스에는 선생이 스크랩한 신문기사들이나 생전에 찍은 사진이 전시 되어 있다. 안방에서 잠시 멈추어 소량의 전시물을 보고 나면, 쇼케이스 전면의 네 짝 미서기 문 너머로는 옛 집필공간을 재현한 사랑방의 정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사랑방은 최순우 선생이 집필하던 공간으로 책장이나 방석, 가구의 형태와 위치부터 병풍, 심지어 전등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생활상을 세심하게 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안방을 지나 대청을 들어서면 한 쪽에는 안방과 같은 규모의 쇼케이스가 길이방향으로 연속 두 대가 배치되어 있고, 집필했던 원고나 사용했던 안경, 라디오, 수상한 메달 등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반대쪽은 진열대 전시로, 최순우 옛집의 옛날과 오늘날을 볼 수 있는 사진집들이 놓여 있어 앉아서 자유롭게 관람하게 된다. 진열대만으로 노출전시 하고 있는 경우 그 높이가 350mm로, 종래의 전시시설이 대부분 서서 관람하는 시점을 위주로 계획이 이루어진 것과 대조된다. 오히려 앉아서 바라보았을 때 관람이 용이하여 한옥만이 지닌 공간적 특성을 살린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넌방은 3.2×4.55M의 규모로, 별도의 전시물은 없다. 여기에는 예전에 사용되던 유일한 가구 유품인 의걸이장이 있다.

내·외부 창호와 벽면 등 기존의 한옥주거공간이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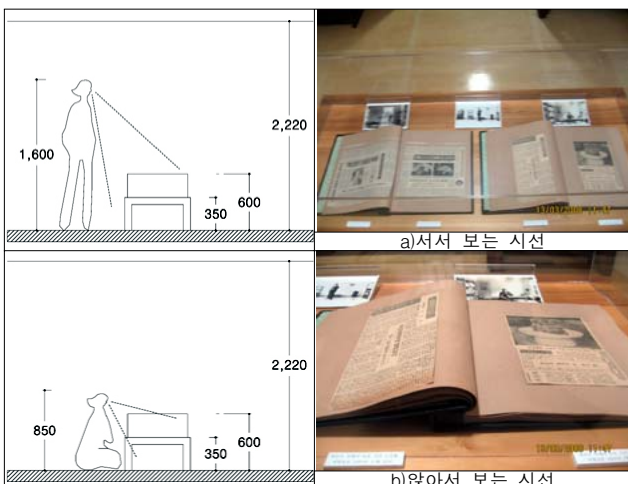


그림 7. 좌식생활-좌식관람을 고려한 전시물 치수

4) 최순우 옛집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전한 학자의 집이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의 산실이라는 의미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의 시민유산으로 전성되었는데, '사랑방'은 당시 최순우 선생이 집필공간으로 사용했던 장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a)생존 당시의 사랑방 b)재현된 사랑방의 모습

그림 8. 사랑방(옛 집필 공간)의 예전과 현재

의장적인 요소들을 살리면서 좌식생활방식을 체험함과 동시에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고려한 낮은 높이의 전시물이라든지, 전시를 위한 공간구성보다도 본연의 생활공간을 가장 우선시하여 별도의 전시물 설치를 절제하고 꼭 필요한 양의 전시물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본래 용도가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 제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 된다.

IV. 전시계획상의 개선 방향

1. 기존의 주생활동선을 고려한 전시동선 계획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의 동선을 보면, 기존 공간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시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된 동선의 흐름이 개구부의 개폐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청공간이 그 주택의 동선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연구 대상인 두 곳 역시 전시용도로의 사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청이 동선처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동절기 난방문제로 대청의 모든 개구부를 폐쇄하면서 동선의 변화가 유도되는 최순우 옛집이나, 제5전시실의 개구부가 폐쇄될 경우 중앙 홀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당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의 동선과 얽히게 되는 이화장의 경우를 보면, 개구부의 개폐여부가 동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생활동선을 고려하여 전시동선을 계획하게 되면, 당시의 생활상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면서 별도의 전시물도 관람하도록 할 수 있어 기존의 전시관이 지니지 못한 '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전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주택을 전시용도로 재사용함에 있어 전시동선 계획만큼은 기존의 주생활 동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릇'이라고 여겨지는 주택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생활사가 간직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한 인물이 생활하던 장소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아 인물유적으로 분류된 문화재 지정 근대기 한옥의 전시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개구부 형태에 맞는 전시공간구성

입식생활을 했던 이화장에서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850mm 높이의 창대 부분은, 내부에서는 창 앞에 놓인 쇼케이스나 패널 혹은 액자 전시에 의해 그 원형이 가려진 부분이 발생한다. 또한 외부 창호의 경우 벽면을 두른 액자전시 때문에 원형이 가려지거나 하여, 외관에서

느낄 수 있는 이화장의 풍취가 누그러졌다.

내·외부 창호의 형태보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화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외벽을 둘러싼 액자 전시로 외부 창호 및 개구부의 일부가 일괄적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는 이화장 전시계획상 특히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내부 전시공간구성에 있어 대부분의 전시들이 틀을 짜서 하는 진열장 혹은 쇼케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좁은 공간에 여러 개의 전시물을 들여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실별 주제를 명확히 하여 생활상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품목들을 배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전시물 계획 시 창대높이인 850mm를 최고 높이로 하여, 진열대나 쇼케이스의 치수를 고려한다면 전시 공간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주택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입식 치수를 이용해 보다 합리적인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전시물들을 접하게 되는 관람자의 편의도 도모 될 것이다.

이화장과 대조되는 좌식 생활방식에서 기인한 다른 전시방식과 전시동선을 지닌 최순우 옛집은 그 특색에 맞게 앉아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사례이다. 모든 가구와 전시물은 기존의 개구부 형태나 위치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개폐가 자유롭고, 그에 따른 공간 사용율도 높은 편이다. 최순우 옛집에서는 현재도 봄·여름·가을이면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이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3. 생활습속의 변화에 따른 전시방식의 채택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은 당시의 생활방식부터 현재의 전시방식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르다. 이화장의 전시 방식은 벽면·진열대·독립전시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실별로 소장하고 있는 전시물의 수량도 많고, 이에 반해 최순우 옛집은 쇼케이스·독립전시가 주를 이루면서 주생활을 보여주는 공간 자체의 전시화 이외에 별도의 전시물 설치가 극히 절제되고 있다.

전시물의 상태에 있어서도, 이화장은 전시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당시부터 전해져 오는 실물을 전시한 것이고, 최순우 옛집은 옛 생활습속을 재현하기 위한 요소들만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전시를 위한 전시물은 거의 없다. 실제의 유품들을 그대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과학적인 발전 양상이나 개인의 취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여 의미가 깊다.

이화장은 개인의 생활습속이 서린 주거 공간 자체가 전시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광의적인 접근보다는 전시물의 소장 및 전시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품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생활습속을 더욱 실감나게 전하지 못하는 맹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대로 최순우 옛집은 쇼케이스 안에 전시된 유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물들이 재현에 의한 것이지만 당시 살던 최순우 선생의 생활습속에 대한 끊임없는 고증과 의견교류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고, 소량의 전시물만을 통한 전시효과가 아니라 집 자체가 하나의 전시공간화 되어 당시 생활습속뿐 아니라 각 공간이 주는 건축적 감상 역시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결국, 이

러한 전시효과는, 생활습속에 따른 전시방식의 채택이 올바른 방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기 한옥 중 인물유적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전시 용도로 변경된 대표적 사례인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근대건축문화재로서의 한옥이 전시용도로 재사용됨에 있어서 전시계획상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이화장과 최순우 옛집 두 사례 모두 기존주택 당시의 주생활동선이 전시용도로 변경한 이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생활동선이 반영된 전시계획은 인물유적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실별 주제를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관람자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이화장의 경우, 입식생활로 인한 개구부의 형태가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어 좌식생활의 한옥 내·외부 창호가 주는 치수의 제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전시계획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좌식보다 훨씬 높은 창대 높이(850mm)인데도 불구하고 진열대의 치수를 이보다 높게 제작하여 개구부 형태와 부조화를 이루며, 모든 실에서 일면 이상의 벽면 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매우 산만하여 효과적인 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순우 옛집에서 각각의 개구부를 피해 기존의 생활방식 및 유품을 보여주는 절제된 전시공간구성 수법을 사용했던 것을 유념한다면 이화장에서도 개구부 형태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집 자체가 하나의 전시공간화 되어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각 공간이 주는 건축적 감상 역시 가능하게 해 주는 최순우 옛집은 생활습속에 따른 전시방식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다.

인물유적으로 분류된 문화재 지정 근대기 한옥은 건축적 가치도 가치이려니와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인물의 생활상이 반영된 ‘주거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관람자가 개개의 전시물만이 아니라 당시의 공간적 상황을 몸소 느낄 수 있을 때, 한옥이 전시용도로 재사용 된다는 것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이민경, 김태영, 선교사 주택의 박물관용도 변경에 따른 전시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3권 제5호(통권223호), 2007.5
- 이광노외4, 건축계획, 문운당, 2001
-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9
- 강경남, 근대건축문화재의 전시용도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05
- 전병옥외3, 근대건축문화재의 전시용도 활용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3권 제3호(통권221호), 2007.3
- 김동식,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사논문, 2001